

2025년 10월 26일  
 통권 13권 33호  
**종교개혁기념주일**

2025년 벙커1교회 표어  
**κόσμος 코스모스**  
 세상 질서 조화(요한 3:16)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흐르게 하여라.

**벙커1교회 주제성구 아모스 5:24**

**섬기는 사람들**

목사 김용민 · 장로 민에스더  
 전도사 오광석 최새론 이용수


**교회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화랑로546번길 16-12)

010-9341-2012

bunker1churchweb@gmail.com

bunker1.me

 **누룩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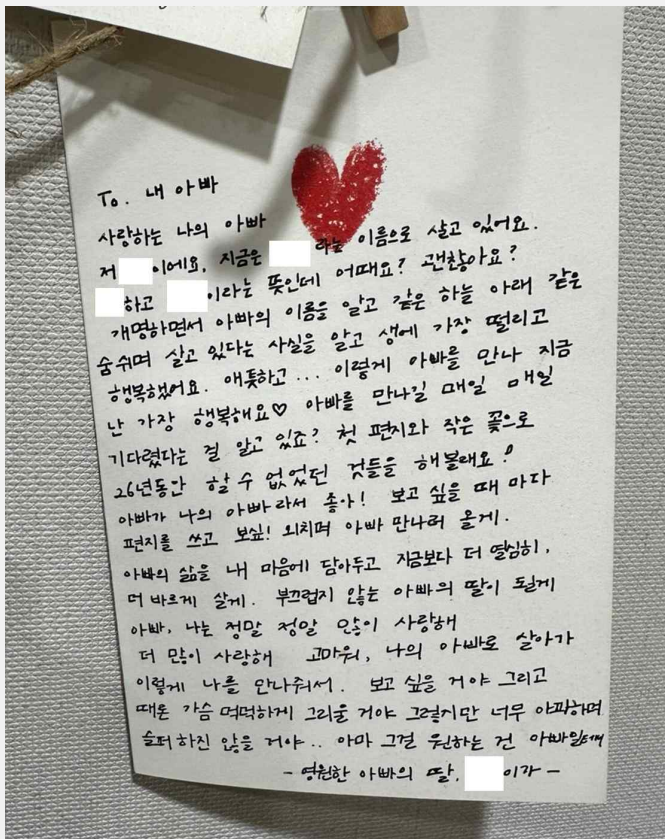
**벙커1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소속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애쓰고 있는 개혁적 개신교회입니다.

창립기념일 2012년 6월 10일



새 교우 등록을 원하는 분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며 예레미야애가 5:1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무연고자를 위한 장례를 치러왔다. 전용 장례빈소 한켠에는 고인의 딸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편지가 있다. 외환위기 때 집을 떠난 뒤 소식이 끊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이제 스물여섯이 된 딸이 쓴 것이다. ‘아빠를 만나길 매일 기다렸던 딸은 영정 속 아버지에게 “보고 싶을 거예요”라며 “영원한 딸”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을 전한다. 무연고자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국 사회의 고립과 단절을 비추는 거울이다. 가족 해체, 빈곤, 질병과 장애, 주거 불안 속에서 생의 마지막까지 돌볼 이가 없고, 장례마저 최소한의 절차로 급히 치러지며 이름만 기록된 채 사라진다. 주변과의 관계가 끊긴 채 발견되는 시신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망이 어디서 끊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삶의 흔적을 추모할 시간과 자리가 없는 현실은 살아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서로의 연고가 되어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슬픔은 복지·보건·주거·지역연대가 촘촘히 맞물릴 때만 줄어들 것이다.

벙커1교회는 무연고자 장례가 진행되는 서울승화원 인근에 있다. 김용민 목사는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의 요청이 오면 언제나 달려가겠다고 했고, 지난 23일에도 안모 고인의 장례예배를 집례했다. 벙커1교회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들의 장례를 비롯해 어떤 애도의 자리에도 조건 없이 함께할 것이다. 예배로 고인을 떠나보내는 자리에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기 바란다. 천국의 영생복락을 빌며 고인과 유가족, 지인들에게 위로를 전할 것이다. 연락처 010-9341-2012.



- 찬양  
찬양팀  
인도 오광석 전도사  
보컬 이난주 집사·김자경 교우·이혜정 집사·이진영 집사·김성운 집사  
김경순 집사  
연주 정진호 집사·박이정 교우·이용수 전도사·장옥상 집사·이종원 집사  
(가사는 모니터 또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 징 울리며 목상하기 정방남 원로
- 신앙고백 일어서서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 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 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 찬송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굳기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굳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후렴]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굳기 붙잡고 주의 진리위해 용기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산과들과 바다가는 곳마다 주의 굳기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세상에 전하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굳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 기도 정성원 집사
- 성경봉독 시편 37:4~11

4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5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6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 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7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를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 하지 말아라.

8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9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 받을 것이다.  
10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11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 ■ 설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는 루터와 개혁자들의 용기와 믿음을 기념하지만, 단순히 “그때 그 사람들”을 추억하는 날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교황의 권위와 부패한 교회제도에 맞서 싸웠지만, 진짜 목적은 사람을 비판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다”는 신앙을 다시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즉, 제도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자들의 후예들도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교황의 자리를 무너뜨렸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인간의 권력이 세워졌습니다. 교리는 굳어지고, 복음은 제도 속에 갇혔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semper reformanda)’는 경구가 무색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고, 숫자와 건물, 성공과 체면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세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던 개혁자들의 후손이 이제는 그들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오직 은혜(Sola Gratia)’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얼마나 섬겼나”를 자랑하려 하지만, 복음은 “너는 은혜로 살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제도의 크기나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은혜를 잇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둘째, 끊임없는 자기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은 한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회개입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신앙인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자만, 교회가 이미 개혁되었다는 안일함을 버릴 때 비로소 복음의 생명력이 되살아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 김용민 목사 완성된 개혁은 곧 하나님 사랑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 있는 명령입니다.

셋째, 약자의 편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편에 서셨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찬송보다, 상처 입은 이웃을 품는 사랑이 하나님께 더 큰 예배가 됩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호 6:6)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넷째, 권력 대신 투명함과 겸손의 리더십을 세워야 합니다. 중세 교황의 부패는 권력이 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과 의사결정이 투명해야 하며, 지도자는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과 희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교회는 “내가 옳다”는 고집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자”는 고백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다섯째,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중심은 옳고 그름의 논쟁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칼이 되고, 사랑이 있는 진리는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길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5) 하신 말씀처럼, 교회의 진짜 권위는 사랑입니다.

결국 교회의 개혁은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완벽한 제도나 위대한 지도자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에 머뭅니다. 종교개혁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교회는 다시 빛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 ■ 광고

사회자

## ■ 파송곡

일어서서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 ■ 축도

김용민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

벙커업 (어린이) 1층 우리지금만나룸 열왕기상 3:4~15 지혜를 구한 솔로몬 영광석 전도사	벙커틴 (청소년) 메디피아공간대어 느헤미야서 3장 Being in Christ 최새론 전도사
---	---

**이태원참사3주기 현장 수요예배** 수 오후 7시 ▶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본문	이사야 61:1~3
설교	슬픔대신 희락을 재대신 화관을 김용민 목사

**새벽성서읽기** 월~금 오전 5시 ▶

월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다
화	출애굽기 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수	사무엘상 7장 우상으로부터의 구원
목	마태복음 4:12~25 예수님의 첫 선포
금	마태복음 5:1~12 복이 있는 사람

(월·화) 김용민 목사 (수) 최새론 전도사  
(목·금) 영광석 전도사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일꾼**

주일 박민호 PD · 수요일 김시현 PD ·  
새벽성서읽기 박종욱 집사

**벙커1교회**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방법

지하철 3호선 삼성역 ③번 출구  
→ 도보 1.9km  
 마일버스 삼성역 ③번  
→ 075A탑승 (DMC역 방향)  
용현마을사거리 하차  
 시내버스 1·4호선 서울역③번  
3호선-GTX A 연신내③번  
→ 703탑승 (탄현역 방향)  
→ 동산고등학교 하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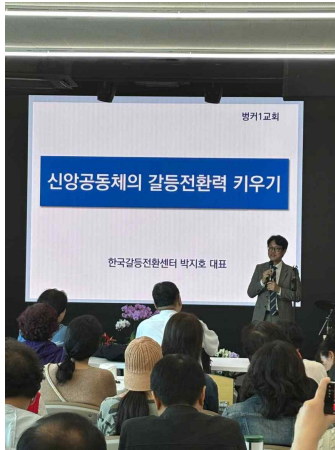


정교분리란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으며 종교 또한 권력을 이용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 헌법을 거쳐 확립된 이 원칙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사이에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벙커1교회** 계좌

헌금 신한은행 100-033-864027  
특수목적 신한은행 100-035-696724

# 교회소식



지난주 ‘비폭력 대화’ 전교인 강의. 한국갈등전환센터 박지호 대표의 열강이 있었습니다.

주일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과 새 신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상훈 A(시주)님과 정성원(우미)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연합성가대** 12월 25일 오후 성탄절 당일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서울북노회 교회들의 연합 성가대 공연이 있습니다. 다음 연습은 오늘 오후 3시 한빛교회입니다.

**수요일예배는 이태원 참사현장에서** 이번주 수요일(29일)은 이태원참사 3주기일로 교회는 참사현장 부근에서 수요일예배를 진행합니다. 서울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1번 출구입니다. 예배 후엔 참사현장까지 도보행진을 이어갑니다. 많은 교우들의 동참 바랍니다.

**129회 노회 정기회** 양미혜 집사의 장로 취임을 보고하는 129회 서울북노회 정기회가 28일(화) 오후 1:30부터 예담교회에서 있습니다. 또한 30일(목) 오후 7:30에 신암교회에서 양미혜 장로 피택자 내외분이 참석하는 장로임직예정자 결단기도회가 노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양미혜 장로 임직식은 내달 23일(주일) 오후 4시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의** 월말을 맞아 운영위원회는 오후 1시 2층 예배당에서 모이겠습니다.

**평화나무 기자 신비롬 목사** 안수 신비롬 평화나무 기자가 지난 22일 경기 구리 만들레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함해노회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신목사는 11월 9일 청년주일에 설교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 100-033-864027 **벙커1교회**

10월 교회 십일조 옥바라지선교회	10월 안내 1여교우회	지난주 현금액 4,183,004원
-----------------------	-----------------	-----------------------